

· 광혜 새 교육과정에 바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이윤성

오랜 전통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연세의대)이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었다. 본디 의학교육이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능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의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의학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의과대학에서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연세의대도 1974년부터 꾸준히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는데, 광혜 새 교육과정처럼 대폭적인 개선은 없었다. 이제 광혜 새 교육과정의 특징을 필자 나름대로 살펴보고, 이에 바라는 바를 피력한다.

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새로 제정하였다.

무릇 교육과정의 변화는 먼저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한 뒤에,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나서 교육에 대한 평가(되먹임)를 통하여 다시 교육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를 교육과정의 나선형 발전과정이라고 한다.

연세의대는 1971년에 만든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광혜 새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요컨대 “겨레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에게 ① 성숙한 직업윤리관, ② 기본 지식과 술기, ③ 자기 개발과 평가 능력을 요구하며, 겨레와 인류를 위해서 ④ 창의적인 탐구정신, ⑤ 국제적 안목과 능동적 태도, ⑥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세의대의 교육목표는 매우 훌륭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이다. 다만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따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따로”인 빼뺀어린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의식하여야 한다.

2. 통합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어느 의과대학이든 현대의 의과대학은 Flexner보고서(1910년) 이후에 과학적 의학을 표방하여,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일률적으로 2년의 기초의학과 2년의 임상의학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의학 지식의 발달과 의료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에 엄청나게 많아진 의학지식을 학문의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기에는 버거워졌다. 이에 북미에서는 1950년대부터 통합교과목이 등장하였고, 이제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통합교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채택하였다.

학문 단위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점은 ①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②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어려운 학문적 내용, ③ 교육 순서의 부적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잘 짜여진 통합교과목일 수밖에 없다.

광혜 새 교육과정의 1학년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① 세포 구조와 대사, ② 분자생물학 및 인체 발생학, ③ 세포 생리 및 근-골격계, ④ 신경과학-I, ⑤ 순환계, ⑥ 호흡계, ⑦ 소화기계, ⑧ 신장계, ⑨ 내분비/생식계, ⑩ 약리학 개론, ⑪ 감염학-I, ⑫ 면역학-I 등으로, 학문 단위(즉, 교실 이름)를 표방한 교과목을 없애고 모두 통합교과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장기별 과목 개편”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통합교과목으로 앞에서 열거한 학문 단위 교과목 교육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과목을 운영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따른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의 주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해부학’ 과목은 어쨌거나 ‘해부학교실’이 책임지고 운영하였으나, 통합교과목은 자칫 한 두 교수가 전횡을 휘두를 여지가 있고 나름대로 높은 벽을 쌓으면 다시 예전 교육과정의 단점이 답습되기도 한다. 따라서 통합교과목은 다시 잘 짜여진 틀 속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통합교과목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교육하는 내용은 없는지,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교육하지는 않는지, 순서는 교육적인 의도로 편성되어 진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 하고 되먹임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3. 문제중심학습(PBL)과 선택과목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의학교육은 꼭 짜여진 ‘강의’와 ‘실습’이 주요 구성이었고, 거의 모든 과목은 ‘전공 필수’였다. 많아진 의학 지식이 그 원인이었다. 이런 의과대학 교육시간표를 빗대어, “고3의 연속” 또는 “우수한 학생을 데려다가 (창의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의사를 만든다는 의미로) 바보 만든다.”는 비아냥거림과 자조(自嘲)가 있었다. 엄청난 양의 의학지식을 ‘쏟아붓기’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오로지 교수의 강의라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교육 형태일 수도 있다.

이제 의사가 되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뿐 아니라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그리고 정보의 자원(resource)이 교수의 강의뿐 아니라 다양해졌다면,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복돋아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창의적인 탐구정신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중심학습(PBL)은 얼핏 보기에는 지식을 얻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시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식 습득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시에 남을 설득하거나 남을 이해하는 기술과 태도도 함께 함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의학교육과정을

모두 PBL curriculum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대학이 많다.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개설은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인 교육과정에 비하여 자신이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의대 교육에서 행운이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충분한 대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세의대의 선택과목 교육과정은 광혜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1999년에 이미 시행된 아주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처음 필자가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발표회에서 느낀 충격은 매우 컸다. 그때까지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도 시행하기를 막연하게 꿈꾸었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우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이었다. 연세의대의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여러 대학에서 참고하고 시도하리라 믿는다.

4.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는 예전처럼 '지식이 많은 의사', '의술이 좋은 의사'에 머물지 않는다. 개인들은 '이해심이 많은 의사', '친절한 의사'를 더 원하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신(professionalism)을 갖춘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로 평가받는다. 전문가정신은 전문인으로서 윤리성과 질적 향상으로 구성된다.

연세의대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있듯이, '성숙한 직업윤리관'과 '국제적 안목과 능동적 태도'와 '이해와 존경 그리고 협동정신'은 생의학(bio-medicine) 교육으로는 도달하기 어렵

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몇 번의 강의만으로도 성취할 수 없다. 예컨대 생명윤리에 관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윤리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면을 고려하며 어떤 원칙을 고려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언뜻 소득이 적은 투자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인문사회의학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광혜 새 교육과정은 무척 부러운 교육과정이다. 관심을 가진 교수가 있고, 이를 지원할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대학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5. 기타

현대의학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의사가 환자를 사회나 가정의 구성원 또는 한 사람의 개체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질병의 숙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광혜 새 교육과정 임상의학입문의 개설의도는 단순히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사를 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한 사람을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의료적으로 도와주는 기초를 교육하며,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가 되기 위한 동기를 일찍 부여한다는 것이다.

맺는 말

광혜 새 교육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1학년에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완성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특징을 보거나 미처 언급하지 못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광혜 새 교육과정은 노력의 흔적이 역력한 작품(?)이다. 잘 만들어 시작한 작품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인 패션 명품과 달리 교육과정은 명품이 되었다고 하여도 만든 뒤에 방치한다면 곧 폐품이 되고 만다. 의학교육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몇몇 교수의 주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랜 전통의 연세의대가 개편한 광혜 새 교육과정은 다른 의과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기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잘 만든 교육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애정과 참여가 필요하고, 교수들의 애정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와 지원이 필요하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연세의대는 “잘 할 수 있는 대학”임을 굳게 믿는다.

더불어 짧게는 1996년부터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훌륭하게 마무리 지은, 그리하여 새 교육과정을 탄생시킨 백광세 학장님과 김세종 학장님, 그리고 여러 연세의대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